

# 수원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노동법교육' 실시

11월까지 초·중·고 53개 학급 대상...22일 칠보초등학교서 시작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11월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53개 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및 노동법교육'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 모습. [사진=수원시]

지난 22일 칠보초등학교에서 시작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및 노동법교육'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올바른 노동관과 직업윤리 정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칠보초등학교 6학년 학생 7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가 '느껴보자, 노동 감수성'을 주제로 노동의 의미, 노동인권, 나와 연결된 다양한 노동의 가치를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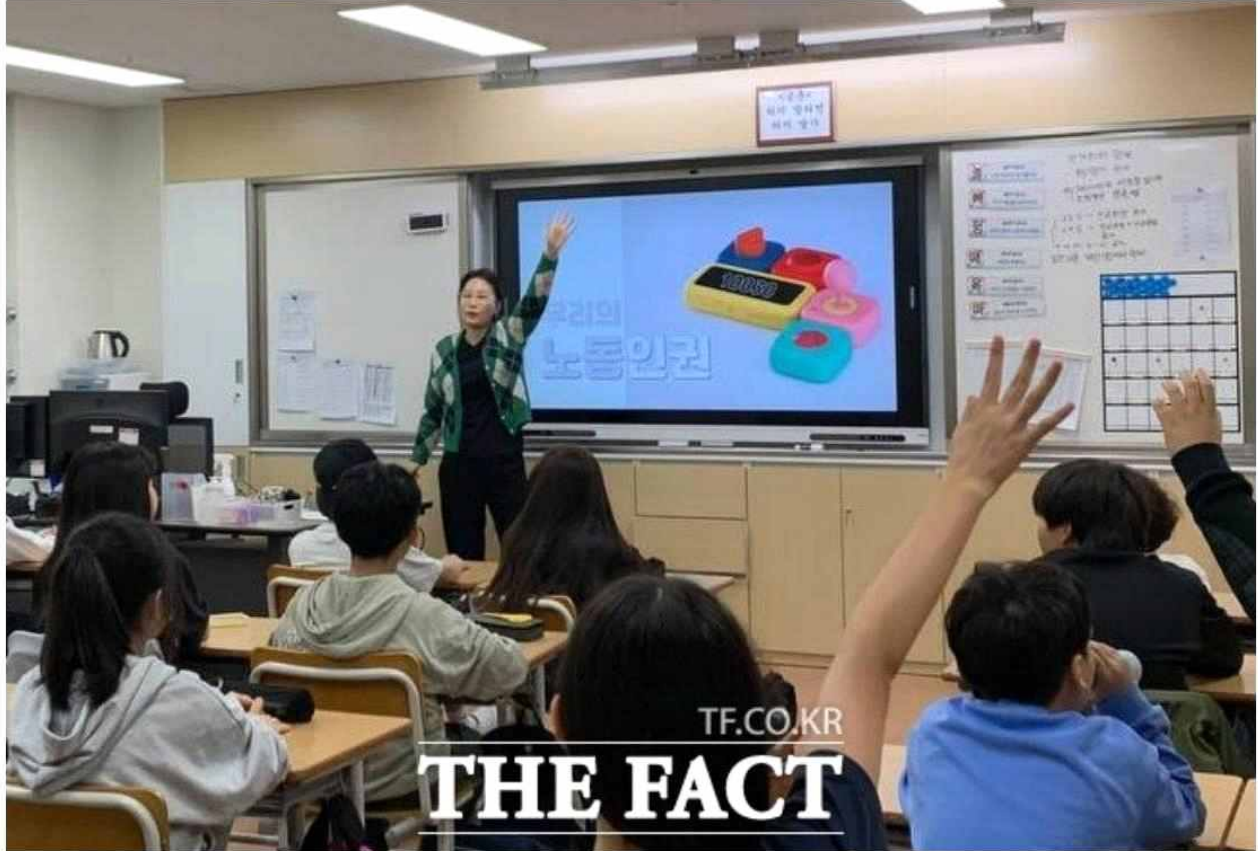
수원시는 11월까지 총 8개교, 53개 학급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어간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나 현장실습 등으로 노동을 경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노동자 권리 보호에 취약한 청소년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

# 수원시, 초.중.고교 찾아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노동법 교육



수원시가 지난 22일 칠보초등학교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및 노동법 교육' 모습 /수원시

경기 수원시는 11월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53개 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및 노동법교육'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칠보초등학교에서 시작한 교육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올바른 노동관과 직업윤리 정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가 '느껴보자, 노동 감수성'을 주제로 노동의 의미, 노동인권, 나와 연결된 다양한 노동의 가치를 설명한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도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나 현장실습 등으로 노동을 경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노동자 권리 보호에 취약한 청소년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 도움이 되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유명식(rkdgksrlwk@tf.co.kr)

## [수원 소식] 초.중.고 53개 학급 대상 노동인권. 노동법 교육 등



수원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및 노동법교육' 모습.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는 오는 11월까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53개 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및 노동법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칠보초등학교에서 시작한 노동법 교육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올바른 노동관과 직업윤리 정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칠보초교 6학년 학생 7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가 '느껴보자, 노동 감수성'을 주제로 노동의 의미, 노동인권, 나와 연결된 다양한 노동의 가치를 설명했다.

수원시는 11월까지 총 8개교, 53개 학급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어간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나 현장 실습으로 노동을 경험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시는 상대적으로 노동자 권리 보호에 취약한 청소년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남상인, 수원=김동우 (namsan4080@mt.co.kr)

# 수원시, 초·중·고교 찾아가 노동인권·노동법 교육한다

## 11월까지 관내 53개 학급 대상 직업계고교 산업안전 교육병행

수원시는 11월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53개 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및 노동법교육'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22일 칠보초등학교에서 시작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및 노동

법교육'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올바른 노동관과 직업윤리 정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칠보초등학교 6학년 학생 7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수원 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가 '느껴보자, 노동 감수성'을 주제로 노동의 의미, 노동인권, 나와 연결된 다양한 노동의 가치를 설명했다.

수원시는 11월까지 총 8개교, 53개 학급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어간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동자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

# 수원특례시, 초·중·고등학교 찾아가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노동법 교육한다

수원특례시는 11월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53개 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및 노동법교육'을 한다.

지난 22일 칠보초등학교에서 시작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및 노동법교육'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올바른 노동관과 직업윤리 정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칠보초등학교 6학년 학생 72명

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가 '느껴보자, 노동 감수성'을 주제로 노동의 의미, 노동인권, 나와 연결된 다양한 노동의 가치를 설명했다. 수원

특례시는 11월까지 총 8개교, 53개 학급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어간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한준 기자 / jonghapnews.com

2025년 04월 24일 (목)

지역 09면

## 경기매일

# 수원시,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 확대

찾아가는 노동법 수업, 청소년 권익 향상 기대  
11월까지 8개교 53개 학급 대상 교육 추진



수원시는 11월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53개 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및 노동법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감수

성을 높이고, 올바른 노동관과 직업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지난 22일 칠보초등학교에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첫 교육은 칠보초등학교 6학년 학생

7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의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가 '느껴보자, 노동 감수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았다. 교육에서는 노동의 본질적 의미와 노동인권의 기본 개념, 우리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노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수원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나 현장실습 등 다양한 경로로 노동을 경험할 때, 노동자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이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화 기자